투데이 칼럼

북한의 대미 압박 극대화

정 복 규
논설위원

국방부가 2022년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규정해 6년 만에 다시 '주적 개념'을 부활시켰다. 북한이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2년 전보다 20킬로그램 정도 더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했다.

북한은 한미가 훈련 구상을 실행에 옮기면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3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겠다는 경고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8일 벌였던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무기들에 대해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예비용까지 해서 12기나 동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인 지원 사업에 공이 큰 이른바 '원군미풍 열성자'들을 평양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거듭 주문했다.

최대 길이 24미터의 괴물 ICBM, 화성-17형이 TEL, 이동식 발사차량에 실려 이동했다. 발사차량 1대를 선두로 2대씩 5열을 이뤄 모두 11대이다. 종대의 끝부분에 예비용으로 보이는 1대가 더 있다.

이동식 발사대에선 321, 361이란 숫자가 식별됐는데, 연속한 번호라면 화성-17형 이동식 발사대를 41대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 현재의 주력 전략핵미사일인 화성-17형과 미래의 핵 능력인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동시에 보여주며 대미 압박 효과를 극대화했다.

중국의 둥펑, 러시아의 토폴처럼 다수 핵탄두를 탑재하고 1만㎞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고체연료 다탄두 ICBM을 목표로 한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초대한 군인지원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군 조직을 새로운 정세에 맞게 확대, 개편했는데 각 군을 상징하는 깃발, 즉 군기들도 바꿨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 군기는 이번 열병식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대내외에 북한의 핵전력이 강해졌다는 걸 과시하고, 앞으로 어디에 군 역량을 집중할지 그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은색 탄도미사일이 상승하는 모습이 그려진 붉은색 깃발은, 고체연료 ICBM 이동식 발사차량에 꽂혀 있던 것과 같다. 고체연료 ICBM의 개발과 운용을 전담하는 부대가 있다는 얘기다.

또 부대 창설 일자가 적혀있는 화성-17형 운용부대 깃발과, 지난번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도 포착된 미사일총국 깃발도 보인다. 부대명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깃발 하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배색과 흡사해 순항미사일 운용부대라는 추측이 나온다.

최정예 특수부대인 11군단의 군기도 김정은 위원장 옆에 도열한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은 갑자기 찾아온다. 준비된 경우에만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을 암시하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어서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북한 붕괴론은 과거 보수정부에서 나오곤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대한민국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했다.

1990년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정권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들이다.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극심한 경제난, 식량난에 따른 붕괴 가능성이다.

하지만 경제난만으로 체제가 붕괴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주민들이 생존법을 체득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나 쿠데타 등 정치 상황 급변에 따른 붕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39세란 나이와 권력 장악력 등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현 체제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지고 자칫 북한의 반발로 남북 사이의 긴장만 더 높아질 수 있다. 북한은 해가 바뀌어도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밀어붙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침공 규탄 집회 참석한 태국 거주 우크라이나인들

지난 2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열린 집회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피랍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집으로"

지난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앞 광장에 시민운동단체 아바즈(Avaaz) 회원들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수많은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러시아에 납치된 것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며 설치한 수천 개의 인형이 놓여 있다. 참석자들은 유럽연합, 미국, 영국, 캐나다 지도자에게 납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14명의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 설

어느 한의사에게 내린 실형

어느 한의사에게 내린 실형을 둘러싸고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해당 한의사는 '산삼 약'을 처방했으나 결국 실형을 받았다. 한의사는 말기 암 환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

한의사는 항소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의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의사는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는 만큼 산삼 약이 효과가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한의사는 암을 제대로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판결했다.

또 "한의사가 처방한 약 등에선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일부 사람에겐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는 2017년 2월, 말기암 환자 배우자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치료를 권유했다. 치료비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요구하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환자 측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이자 한의사는 지인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다. 이 지인은 환자 측에 "해당 한의사의 산삼 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치료가 실패했을 때 한의사가 반환할 금액을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했다.

결국 환자 측은 총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해당 한의사로부터 산삼 약 등을 처방 받았다. 그러나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돼 결국 2020년 사망했다. 한의사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북 쌀 신동진 수난

정부가 최근 쌀 생산을 조절하겠다며 내놓은 계획에 농촌이 발칵 뒤집혔다. 다수확 1등 품종이자 전라북도의 주력 상품이던 '신동진벼'를 정부가 수매하지도 보급하지도 않겠다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북 대표 '신동진쌀'은 다른 쌀알보다 1.3배 굵어 일품으로 평가받는 식감 덕인지 소비자의 반응도 호의적인 편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쌀 생산대책 추진 계획 때문이다.

신동진쌀을 콕 집어, 내년부터 품종 매입을 제한하고, 내후년엔 종자 공급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그동안 도내에서 공공비축미로 사들인 수매 물량 가운데 74%가 신동진이 었는데 일절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종자 공급까지 끊어, 씨를 완전히 말리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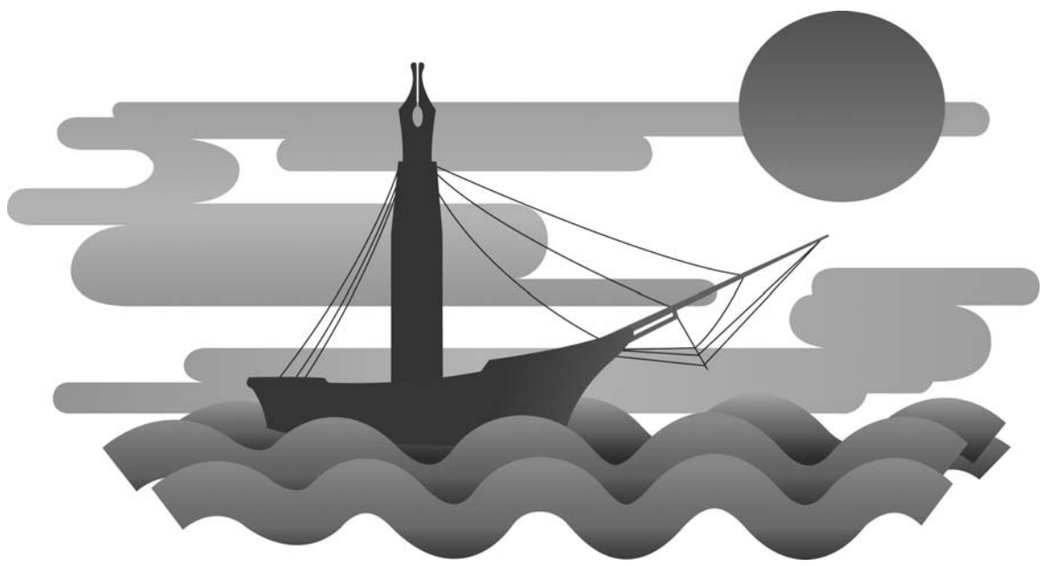
쌀 소비는 나날이 줄고 과잉공급이 문제가 되다보니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신동진이 희생양이 된 이유는 바로 '1등'이기 때문이다.

신동진은 30평을 기준으로 벼 생산량이 570㎏을 넘어 수확이 많이 되는 품종이다. 상위 20개 품종 가운데 신동진벼 재배 면적은 5년 연속 전국 1위다. 전라북도에선 신동진벼 점유율이 53%에 이를 정도로 독보적이다.

신동진벼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김제와 의존도가 70%가 넘는 군산이 퇴출 방침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재작년 신동진벼를 중심으로 병충해가 속출하면서 의존도를 점차 낮춰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급작스런 퇴출 계획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가와 지자체의 반발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의견 수렴 단계일 뿐이라면서도, 조만간 최종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